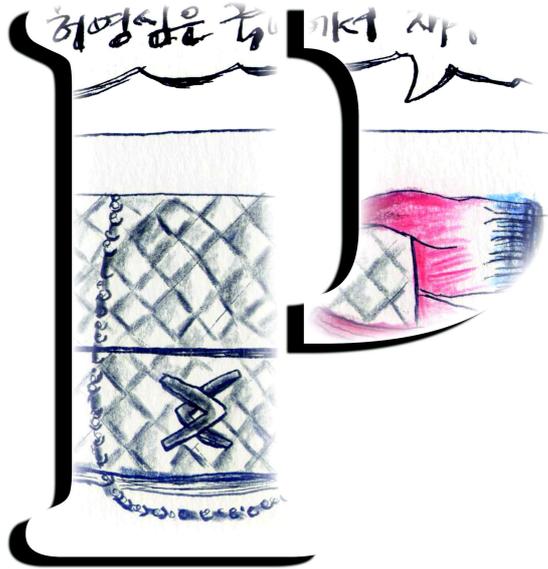


# 사진을 활용한 유아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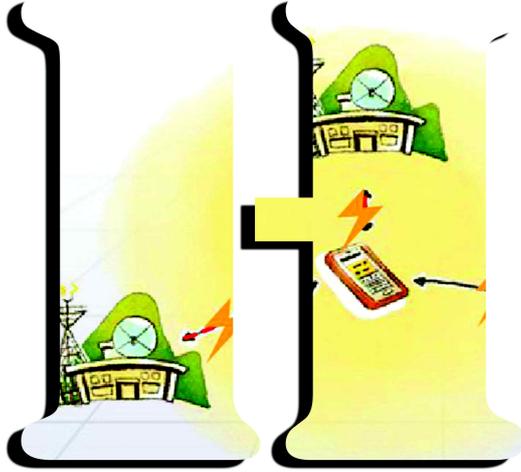
최연철(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연구에서의 다원화 경향
  - 주제와 연구방법 면에서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예
  - 질적연구의 확산

- 변화에 수반되어야 하는 고민
  - 질적연구 방법의 확산이 유아연구방법의 다원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질적연구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 유아교육 연구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의 연구방법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래서 연구방법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연구자가 고민해야 할 몫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 유아연구방법 다양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
  - 유아연구에 있어서 시각적 이미지, 특히 사진을 활용한 연구방법 모색
  - 근거: 시각적 자료를 교육연구에 도입해야 한다는 교육학자들의 주장  
시각적 인류학(visual anthropology)과 시각적 사회학(visual sociology)

## ※ 유아연구에서 시각자료의 활용



### ● 소극적 의미의 활용

- 질적연구에서 현장기록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시각적 자료 사용: 질적연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삼각화기법의 일환으로 사용
- 양적연구에서 비디오나 오디오 자료를 전사하여 기술통계치와 비모수통계치 등을 산출

### ● 적극적 의미로 활용(학위논문의 예)

- 김성애(2012). 생태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 김승미(2014). 사진 찍기를 통한 표상활동이 유아의 공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은정(2013). 사진을 활용한 숲 체험 활동이 유아의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문인경(2013). 사진 찍기를 통한 쌓기 놀이 평가활동이 유아의 기하도형이해에 미치는 영향
- 문정은(2014).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박미정(2009). 사진 활동을 통한 유아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 변화
- 배연희(2010). 사진찍기를 통한 산책활동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경험
- 이모아(2013). 유아 촬영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가 일과활동의 자율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이수영(2012). 사진을 활용한 언어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 이승혜(2006). 일상사진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 이진희(2014). 사진을 활용한 자유선택활동 놀이 평가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경험
- 전복순(2012). 사진활동이 유아의 수학개념에 미치는 영향
- 최명하(2012). 사진을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 및 환경 보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 시각적 이미지에 기반한 연구 (image-based research)의 역사에 대한 개관

- 시각적 인류학: 19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각적 자료를 인류학적 현장기록으로 중요하게 활용
- 시각적 사회학: 1970년경부터 사회학 분야의 하위 영역으로 등장

- 시각적 인류학과 시각적 사회학의 자리매김에 영향을 미친 작업의 예

- 미국 농업안정국(FSA)의 사진 연구: 극심한 가뭄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도우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정부지원 연구 / Stryker의 주도하에 Lange와 Evans 등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사업
- Riis와 Hine의 사회 다큐멘터리 작품: Riis는 1890년대의 도시빈민층을 사진에 담았음 / Hine은 뉴욕시에 도착한 이민자의 모습과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 / 특히 Hine의 사진은 비참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아동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아동 노동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인류학자가 시각적 이미지를 연구에 활용한 예

- 인류학자인 Bateson과 Mead(1942)가 발리인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사진과 필름을 활용
- Worth와 Adair가 수행한 “나바조의 눈으로(Through Navajo Eyes)(1972)”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시각적 이미지를 직접 제작 / 북아메리카 인디언인 나바조족 남녀 7명에게 16밀리 카메라의 사용법을 익히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표상하도록 하였음



- 유아교육분야에서 사진을 활용한 초기의 예

- 예일대학교의 아동발달연구소 소장이었던 Gesell이 인간 행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사진을 자신의 연구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
- 여러 해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많은 유아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사진을 근거로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달과정의 과정에 대한 일정표를 제작
- 앞에서 언급했던 몇 개의 연구 시도와 마찬가지로, Gesell의 연구방법도 학문적 전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 유아교육분야에서 사진을 활용한 최근의 예

- Harvard 대학과 Reggio Emilia의 공동 프로젝트인 Project Zero 연구에서는 서술과 설명의 목적으로 사진을 활용하고 있음
- 기록화(documentation)의 과정에서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진이 학습경험의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포착하는데 특히 효과적이기 때문임
- 즉 사진을 통해 유아의 표정과 몸짓에서 나타나는 경이, 좌절, 기쁨, 그리고 몰두를 표현할 수 있으며 집단 구성간의 관계 정도 역시 나타낼 수 있음



- 유아교육연구에서 사진 활용 방안

- 역사적 분석을 목적으로 사진 활용

예: Ariès(1973)의 “아동의 탄생”

Margolis(2000)의 연구

이승원(2005)의 “학교의 탄생”

Knapp의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 묘사와 서술의 목적으로 사진 활용

- 연구를 수행할 장소와 상황에 대한 개관의 목적으로 활용

예: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놀이행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각 놀이터의 물리적 환경을 사진촬영하고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각 놀이터별 평면도를 작성(이숙재, 1994)

- 연구 상황에 대해 묘사하거나 그 상황에 담긴 맥락적 의미를 서술하기 위해 사진 활용

예: 창고 근처의 벽돌 벽 위에 올라앉아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긴 듯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어느 소년의 사진

어떤 학교에서는 (방황하는 학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으며 이 학생도 그런 학생 가운데 하나이다. 이 소년은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져 있으며 행동상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토요일 오후는 그가 과학교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도, 나는 석탄과 잡동사니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에 숨어있는 그를 항상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과학 선생님은 자기 수업을 방해하거나 배우는 것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이 학생에게 “꺼져버려”라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을 때려주러 갔다가 오히려 교사가 아버지를 가두어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소년은 결국 퇴학당했다 (Prosser, 2000).

## ※ 사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 ● 사진은 권력이다

사진기를 손에 든 유아에게는 사진을 찍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과거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사진기가 총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진기를 가진 유아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힘은 공정하게 사용되었다. 누가 자기를 찍어 주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를 찍어 준 친구는 반드시 찍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기를 찍어주지 않은 친구는 좀처럼 찍어주지 않았다.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왜 나는 안 찍었어! 난 이제 윤형빈 하나도 안 찍을 거야(6/19 사진사: 형빈)”와 같은 다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현아: 나 너 찍어줬잖아

영진: 아니야, 안 찍어 줬잖아!

수지: 나도 찍어줘

영진: 너도 나 안 찍어줬잖아! (6/27 사진사: 영진)

연구자가 현아와 수지가 찍은 사진을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영진이의 말은 사실이였다. 찍어줬다고 우기는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었지만,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이였다(최연철, 2009).



- 사진은 자극이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유아들의 다양한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이 없었다면 말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을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은 ‘자극’이었다.

용진이가 찍은 사진은, 연구자가 일부러 뿌옇게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셔터를 누르는 과정에서 흔들려서 흐리게 나온 경우이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았으며 사진이 흔들리게 찍힌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교사: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지?

친구: 흔들려서 그래요.

친구: 민기이와 병진이도 움직여서 그래요.

친구: 그럼 책상도 움직여? 올챙이도 움직여?

친구: 사인펜도 움직여?

친구: 바람이 불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나서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기를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원래 찍고 싶었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전혀 원하지 않은 장면이 찍힌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셔터를 누르고 나서 바로 사진기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얼굴이 반쪽밖에 나오지 않은 사진을 보면서 TV의 크기가 더욱 컸더라면 얼굴이 모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최연철, 2009).

● 사진은 증거이다



인기 있는 자유선택 영역일 경우에는 가끔 그 전날 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일이 있었다. 그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아같은 경우에는 틈새를 노려서 들어갔다가도 이내 쫓겨나는 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피곤함을 모르는 사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해 주었으며 렌즈에 포착된 장면은 확실한 증거의 역할을 해주었다

교사: 오늘 조형영역에는 누구 누구 들어왔을까?

친구: 이수지, 김경수....

형빈: 오늘 들어간 사람은 내일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7월 5일 사진사: 진수)

민기: 정희진, 최병진은 내일 쌓기 놀이 영역에 들어가지 마세요. (7월 12일 사진사: 민기)

사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관찰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일도 많았다. 대상물에 대한 관찰을 하거나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사진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프로젝션 TV를 통해 사진을 감상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다. 사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항상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최연철, 2009).

● 사진은 왜곡이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 기술에 따라 사진과 실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진사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끝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진은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맥락이 달라지면서 다르게 읽혀지기도 하고 다른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진은 ‘항상 현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지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진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성의 영역을 확장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상호의 왼팔 길이는 특별히 길지 않은데 너무 길게 찍힌 이유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토의했으나 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며(7월 3일 사진사: 성대) 게시판의 면적이 사진과 실체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6월 23일 사진사: 우찬). 사진에 있어서 ‘왜곡’은 유아들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분간 ‘마술’의 영역에 남아있어야 했다.

교사: (게시판 사진 보면서) 인어공주가 없네! 누가 인어 공주 그려줄래?

친구: (TV를 보면서) 그런데 붙일 자리가 없어요!

교사: 너희들이 그려주면 선생님이 붙일 수 있도록 할게.

친구: 사진으로 보면 조금 밖에 못 붙일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길 보면 (실제 게시판을 가리키며) 붙일 자리가 많아요. (6월 23일 사진사: 우찬) (최연철, 2009)



● 면접 목적으로 사진 활용하기

Secondulfo(1997):

사진-면접(photo-interview)

Prosser와 Schwartz(1998):

사진-유도(photo-elicitation)

Wang(1999):

사진 소리(photovoice)

● 사진-면접의 대표적인 예

- Bunster(1977)는 페루의 리마에 살고 있는 직장여성을 면접하기 위해서 사진을 활용
- Diamond(1996)는 장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3-6세의 유아들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사진사용
- Foster와 그 동료들(1999)은 3학년, 6학년, 그리고 9학년 아동이 역사적인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대해 연구
- Salmon(2001)은 소품이 아동의 과거사건 기억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품을 면접에 사용
- Weinger(1998)는 부유한 아동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 가난한 아동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5-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층 가정과 중산층 가정의 생활모습을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면접을 수행
- Harrington과 Lindy(1998)는 Southern Indiana 대학교의 신입생에게 일회용 카메라를 나누어주고 대학교의 인상적인 면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찍도록 함
- Schratz와 Steiner-Löffler(1998)는 “사진-평가(photo-evaluation)”라는 절차를 고안하여 자신들의 연구에 적용
- Orellana와 Hernandez(1999)는 유아(주로 1학년)에게 카메라를 나누어주고 주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문자언어를 사진으로 찍도록 하고 유아들이 찍은 사진을 글쓰기활동에 사용
- Orellana(1999)는 유아들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분석에 활용